

사랑의열매

열매

2021 **01**

“올겨울,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것은 서로를 믿고, 나누고, 연대하는 힘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4일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은 일상을 넘어 삶이 멈추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잊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요.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는 가운데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눔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도록 지금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사랑의열매 공식 SNS

📷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 페이스북 @chestkorea

📝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 유튜브 오지랴(oz.lab)_ 유튜브에서 '오지랴'를 검색하세요.

PLUS EVENT

책 뒤표지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을까요?

참여방법 숨은 그림을 찾아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를 달고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우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필수 해시태그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당첨자 선정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인터뷰와 사진 촬영은 발열 검사와 소독을 마친 뒤 진행했으며, 사진 촬영 전후와 인터뷰 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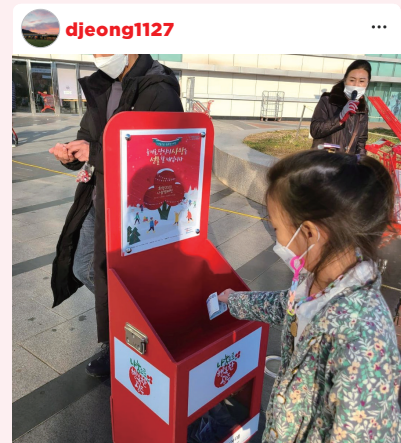
♡ 🔍 📌 ...

#사랑의열매
 *어제 아침 유치원 가는 차 안에서
 👤 엄마~ 저 용돈으로, 엄마 돈 말고 저 걸로 기부하고
 👤 사랑의열매 받고 싶어요.
 *오늘 오후에 저금통 기부를 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 민겸이의 기부로 도움받을 사람은 행복하겠다.
 👤 엄마~ 저도 행복해요~
 👤 민겸이는 기부가 뭐라고 생각해?
 👤 저도 행복하고 저금통 받는 사람도 행복한 거요.
 👤 우리 민겸이 대단하다~ 훌륭해!
 #7살아들 #엄마보다났다
 #아빠보다났다 #누나들보다났다
 #생각이깊은아이 #얼마안되는용돈으로
 #기부 #백프로리얼대화
 #엄마와아들의대화
 #오늘도사랑동아들 #아들덕분에
 #따뜻한연말 #삼남매네
 #내가뜨개로완성한모자
 #털모자뜨기완성



♡ 🔍 📌 ...

#나와서울 #사랑의열매
 아직 11.8°C밖에 안 되었어요.
 모두가 추운 이 시기, 잘 버티려면 조금씩 나누는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한데...
 나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 🔍 📌 ...

#사랑의열매 받고싶어 기부함
 연탄2장 값이지만 뿌듯해함.



♡ 🔍 📌 ...

#사랑의열매 #100도까지~
 1주

나눔태그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기타 해시태그 #봉사 #기부 #나눔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시는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CONTENTS



사랑의열매

vol. 165 2021. 01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21년 1월 / 통권 165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기획

모두의 나눔_C-SDGs 연계 배분 사업 ⑩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12 우리 삶을 바꾸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듭니다



04 캠페인 출범식

희망2021나눔캠페인
62일간 나눔 여정 시작

06 온도탑 올리기

기부자들의 나눔손으로 잇는 희망

08 지금은 나눔 중

희망2021나눔캠페인 지상파 3사
모금 특별 생방송

10 모두다 토론회

시민의 이야기를 담아 모두를 위한
나눔으로



18 **특별 기획**
임형주의 나눔 초대석 ㉠
 세계적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만난
 나눔의 명사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

22 **내 인생의 한마디**
 나란히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한
 정원석·이나라 부부

26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장애인 여행 장벽 없애는
 전동화 키트 대여 서비스

30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10년 연속 돼지 저금통 기부해온
 고성군 심재술 주무관

32 **W아너**
 여성 아너, 나눔문화에 한 획을 긋다
 W아너 500번째 회원 탄생!

34 **착한권리**
 무형자산을 기부하는 착한권리

36 **착한기업**
 제너럴바이오가 만든
 나눔과 성장의 선순환

40 **착한동네**
 생태 휴양 도시의 진면목 발견
 의왕시

44 **나눔공모전**
 제8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46 **학술상**
 제2회 사랑의열매 학술상 시상식 개최

47 **함께편딩**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편딩

48 **국제 파트너십**
 사랑의열매와 UWW가 준비하는 미래

50 **전국 지회 뉴스**

62 **이달의 아너**

64 **독자 페이지**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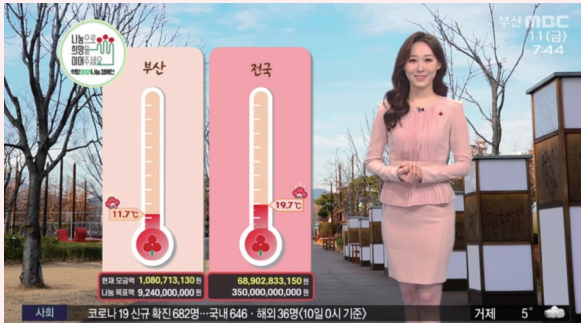
희망2021나눔캠페인 62일간 나눔 여정 시작

사랑의열매 연말연시 이웃 돕기 캠페인 '희망2021나눔캠페인'이 시작됐다. 서울광장에서 캠페인 출범 선언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도 일제히 나눔 대장정에 돌입했다. 글 이선희 사진박충렬, 사랑의열매, 부산MBC 방송캠퍼

지난 12월 1일 서울광장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출범식이 열렸다. 2019년만 하더라도 기부자,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캠페인 시작을 축하하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이번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서울 사랑의열매 운영석 회장,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방송인 박수홍 씨,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자리한 가운데 캠페인 출범을 선언했다.

2000년에 처음 등장해 이제는 캠페인의 상징이 된 사랑의온도탑이 12년 만에 자리를 옮겨 서울광장에서 시민과 만나고 있다. 별 모양 모티브로 제작해 '어려운 상황에서 빛을 비추고, 희망의 길을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친환경적인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어 나눔온도를 올리는 게 특징이다. 희망2021나눔캠페인은 나눔목표액 3,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2021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한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전국 사랑의열매 지회에서 준비한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색 현장



부산의 나눔온도를 알려드립니다

희망2021나눔캠페인 시작과 함께 부산에서는 기상 캐스터가 나눔온도 알리미로 변신해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40분 부산 MBC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에 등장한 드라이브 스루 모금

지난 12월 8일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공영 주차장에서 승차(드라이브 스루) 모금이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 방침을 준수하며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 이날 서산 내 단체·기업체·시민 등의 기부가 이어졌는데, 기부자들은 안전하면서도 색다른 모금 방법에 즐거워했다는 후문이다.



창원 줌마벨라들과 함께하는 '내 아이 첫 기부'

경남 사랑의열매는 창원 지역의 최대 온라인 맘 카페 줌마벨라와 '내 아이 첫 기부' 협약식을 맺었다. 희망2021나눔캠페인 기간 중 카페 회원들에게 사랑의열매를 알려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자발적인 모금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 생애 첫 기부, 착한가정 등 소액·정기 모금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착한가정 릴레이 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

희망2021나눔캠페인 릴레이 이벤트

기부자들의 나눔손으로 있는 희망

희망2021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기부자가 직접 참여하는 '온도탑 올리미'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황금손보다 더 귀한 7명의 나눔손이 차례로 나눔온도를 쏘아 올릴 예정이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온도탑 올리미 1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방송인 박수홍

2016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가 된 방송인 박수홍 씨는 사람들이 나눔을 쉽고 가깝게 여기도록 다양한 활동을 했다. 2017년에는 어머니와 함께 착한가정에 가입해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섰으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분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겠지만, 소외된 이웃들은 특히 더 힘든 때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여러분의 사랑과 희망을 전달해주신다면 그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랑의열매 기억해주세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하죠.”

“나눔을 실천하면 우리 이웃에겐 큰 희망으로 전해집니다.”



온도탑 올리미 2호

하루에 119원씩 모아 기적을 만드는 인천소방본부

2019년 8월부터 인천소방본부는 '119원의 기적'을 시작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하루 119원씩 모으는 프로젝트로, 소방본부 직원은 물론 관내 은행과 기업체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1년 만에 3,900명 이상이 참여해 1억 7,000만 원을 넘게 모금했고, 어려움에 처한 25명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인천소방본부 서영재 소방관 “119원의 기적'을 홍보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분을 많이 만납니다. 그 고마운 마음들 덕분에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도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온도탑을 많이 봤는데 직접 온도를 올렸더니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119원의 기적'처럼 이번 캠페인 나눔온도도 119°C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눔온도를 직접 올려보니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온도탑 올리미 3호
여행업계를 지원하는 착한일터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착한일터 캠페인에 참여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69명이 매달 급여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 김혜원 주임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업계를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만큼 따뜻한 마음이 많이 모여 나눔온도 140℃를 달성했으면 합니다.”

온도탑 올리미 4호
소속 기관장 7명 나눔리더 단체 가입한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11월 30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노인종합사회복지관장 7명이 단체 가입식을 통해 나눔리더가 되었다. 사랑의열매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직접 배분 사업을 진행하는 복지 현장 기관장들이 한데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은주 회장 “은 세상이 힘들었던 2020년이지만, 특히 노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으로 노인복지 실천 현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사회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반려로봇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희망의 온도를 높여라!

희망2021나눔캠페인 지상파 3사 모금 특별 생방송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연말연시,
사랑의열매의 '희망2021나눔캠페인'이 시작됐다. 지상파 3사는 특별 방송을 편성해
사랑의온도탑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힘을 보탤다. 글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방송 3사 중 가장 먼저 방영한 MBC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KBS 특별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윤인구, 이선영 MC와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이봉주 선수, 가수 현숙 등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했다.

MBC 특별 생방송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지난 12월 8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2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MBC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는 방송 3사 중 가장 먼저 방영한 프로그램으로, 아나운서 김정근과 배우 박시은이 진행을 맡았다. 이날 방송은 1·2부에 걸쳐 추운 겨울 힘겹게 견디고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특히 LTE 화상 연결을 통해 전국 사랑의열매 지부를 연결해 나눔 상황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눔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랑의열매 직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기부자들까지 자리를 함께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KBS 특별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지난 12월 22일, KBS 특별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가 오전 10시부터 100분, 오후 2시 30분부터 100분간 방송됐다. 이날 방송은 윤인구·이선영 MC의 진행으로 1·2부에 걸쳐 이뤄졌는데,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과 신혜영 자원개발본부장이 전문가 패널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방송인 현영, 이연복 셰프, 가수 현숙, 이봉주 마라톤 선수 등이 1·2부 게스트 패널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뿐 아니라 이날 방송은 서울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KBS 시청자 광장과 전국 9개 지역총국을 연결해 함께 진행했다. KBS 시청자 광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와 박용진 의원, 개그맨 김학래 등이, 각 지역총국에는 해당 지자체장과 연예인, 기부자 등등이 출연해 기부에 동참하고 나눔을 독려했다. 전국의 캠페인 현장과 기부 행렬, 봉사 현장 등을 통해 나눔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SBS 희망 TV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SBS 특별 생방송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는 지난 12월 18일에 방영됐다. 오후 3시부터 120여 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방송은 SBS 목동 방송센터를 중심으로 사랑의열매와 함께 강원, 광주, 대구 등 전국 10개 지역 민영방송이 함께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백당나무 줄기로 연결돼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은 사랑의열매 빨간 열매 엠블럼을 소개하며, 사랑의열매가 어떤 단체인지 자세히 설명해줘 믿고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가 패널로 출연한 김연순 사무총장은 나눔캠페인 기부금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



SBS 희망 TV 특별 생방송은 사랑의열매뿐 아니라 전국 10개 지역 민영방송과 함께하며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2020 모두다 토론회

시민의 이야기를 담아 모두를 위한 나눔으로

소중한 기부금을 잘 나누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소통하는 '모두다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사랑의열매의 고민에
더 많은 시민이 답을 했고, 전문가의 제안까지
더해져 소통이 한층 강화됐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지난 11월 26일 온라인 생중계로 '모두다 토론회'가 열렸다. 12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전개하는 희망2021나눔캠페인의 기부금을 앞으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시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6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했고, 기부자,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유관기관 등 나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온라인 생중계에 함께했다.

2019년에 열린 제1회 모두다 토론회에서는 시민 200여 명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바람을 담아 81개 제안을 했다. 이를 사랑의열매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재분류했고, 총 4,000억 원을 시민 제안에 기반해 배분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설문했고, 시민 2,020명이 응답했다. 특별히 청소년 59명도 참여해 모든 연령대의 의견을 모았다. 2020 모두다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은 2021년 배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발판 삼아 사랑의열매는 새로운 영역을 지원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회자 전제향(방송인), 다음세대재단 방대옥 대표, 더나은미래 김시원 편집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안인숙 이사,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은솔,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박재민(배우),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2,020명 시민이 제안하는 2021 사랑의열매 기부금 사용 방향 한눈에 살펴보기

Q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시민들은 아동 > 장애인 > 노인 >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 청소년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 만 13세
이하 아동을 선택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 선택한 경향을 보였다.

Q 사랑의열매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빈곤 퇴치



경제적 빈곤 퇴치를 선택한 시민이
가장 많았으며, 영양 및 급식 지원,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교육 및
자립 역량 강화 등이 뒤를 이었다.
2019년도에는 의견이 없었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 환경을 선택한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Q 기존 영역 외에 신규 분야로 배분
영역을 확장해야 할까?

**필요하다
89%**



시민 10명 중 9명(89%)은
사랑의열매가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사랑의열매는 어려운 이웃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존 영역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 모두다 토론회가 꾸준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제안이 어떻게 배분 사업에 반영되는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안한 내용들이 배분 사업에 반영돼 파급력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사랑의열매와 사회복지 현장은 대등한 파트너이고 그 수혜자는 국민입니다. 사랑의열매와 사회복지 현장은 동료라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랑의열매가 배분의 주제를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열매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원이 사회 변화에 쓰일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가 촉진자 역할을 하길 부탁드립니다.”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안인숙 이사

“모두다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를 논의하다 보면 사랑의열매의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나은미래 김시원 편집장



우리 삶을 바꾸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91.8%는 도시에 거주한다. 따라서 도시 과밀화로 환경, 경제, 사회, 문화적 불평등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모든 사람이 적정 수준의 주택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자연재해나 재난의 위험에 대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조성흠



매달 사랑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인 C-SDGs의 16개 목표 중 하나를 선정해 주요 배분 사업 함께 소개한다. 이번 달은 11번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업을 다룬다.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길 위의 작은 쉼터 '한 평 쉼터'

길을 걷다가 힘들면 쉴 곳이 마땅히 없어 쌓아 놓은 상자나 길바닥에 앉아 있는 주민이 많았다. 이에 인천 창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의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거리에 작은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먼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자를 설치해야 할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해 복지관, 공공 기관 가는 길 등 주민들의 생활 동선에 맞춰 길목마다 작은 의자를 설치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성공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천 동구청에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당 지자체 복지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1 주민의 생활 동선에 맞춰 설치한 '한 평 쉼터'
2 설치 후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2019년 주민보고회



따사로움북카페사업단 내부 기능 보강 인테리어 사업

전남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북 카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대로 바리스타 교육과 창업 교육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카페 공간까지 확보하는 등 차근차근 진행해나갔으나 만만치 않은 인테리어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카페는 단순한 커피 전문점이 아닌, 책이 있는 문화 공간이자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인테리어가 중요했다. 이에 한국남동발전(주)여수발전본부가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해 내부 공사를 완공했다. 모두의 기대 속에서 문을 연 '따사로움' 북 카페는 고객의 호응을 받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1 여수시 덕충동에 문을 연 따사로움 북 카페
2 아늑한 카페 내부





“ 비가 많이 오면 자활 세탁실과 창고에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누수로 인한 합선도 걱정됐고요. 아직 세탁실과 창고를 확인하기 전인데요, 공사를 통해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기대가 큼니다. ”

- 재할 사업의 세탁 서비스 참여자

복지관 태풍 피해 시설 기능 보강 사업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부산 지역을 관통하며 많은 피해를 남겼다. 고지대에 자리한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은 강한 태풍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지역 주민에게 기부 식품을 전달해주는 푸드뱅크창고, 세탁 및 청소사업단이 사용 중인 자활창고와 세탁실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기부 물품을 보관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누수로 인해 합선 위험까지 노출된 상황이었는데, KT스카이라이프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보수했다.



1 태풍 피해를 입어 파손된 푸드뱅크 창고 2 지붕 누수 공사까지 마쳐 한층 안전한 환경이 됐다.



**지역자활센터 소독·방역 지원 및 방역 관리
물품 구매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전국이 방역에 신경을 쓰던 2020년 3월,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사랑의 열매로부터 코로나19 지원금을 배분받았다. 덕분에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전국 250여개 지역자활센터와 1,500여개소 자활 근로 사업장에 소독·방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 250개 지역자활센터에는 소독·방역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도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구와 경북에 더 많은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달받은 지원금으로 전국 250여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소독·방역 서비스를 실시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였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희망더하기'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희망더하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더하기는 2014년부터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57개 복지시설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미세먼지 유입으로 깨끗한 공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8개 사회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전달했다.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
거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따로 지원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주거 환경 수선이 필요한 가구가 발생하면 수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0년에는 12가구가 생활상의 불편 해소와 미관 개선을 위한 소규모 수리를 받았다. 덕분에 추운 겨울을 한층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보내게 되었다. 🍷

1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최주한 회장과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박중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희망더하기 후원 물품 전달식
2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소규모 수리 진행

韓國의 印章年表

時代	古朝鮮 B.C. 233	樂浪 B.C. 180	三國	統一新羅 A.D. 668	高麗 A.D. 918	朝鮮 A.D. 1392	大韓民國 A.D. 1947
內容	新羅의 印章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樂浪의 印章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三國의 印章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統一新羅의 印章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高麗의 印章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朝鮮의 印章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大韓民國의 印章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印章의 使用은 古朝鮮의 印章과 相似한 形制를 띠고 있다.





세계적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만난
나눔의 명사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

“사랑의열매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세계적 팝페라 테너이자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임형주 로마 시립예술대학
석좌교수가 나눔의 명사를 찾아 나선다.
치열한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온 명사들을 만나 임형주 교수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열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한국
문화계의 대부,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을 세 번째 초대 손님으로
만나본다. 글강은진 사진박충렬

사랑의열매 역할이 중요한 때

임형주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이렇게 <사랑의열매> 신년 1월호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사장님!

김종규 반갑습니다. 언제나 평화로운 마음을 안겨주는 임형주 교수를 만나 나도 아주 좋습니다.

임형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종규 지난 2020년은 우리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어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열매의 역할이 부각되었고, 존재감이 빛났지요. 우리 임 교수는 사랑의열매뿐 아니라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홍보대사이기도 하니 아주 적절한 때 잘 만난 것 같아요.

“사람이 90세까지 산다고 할 때
30년은 공부하며 준비하고, 30년은
생업에 매진하고, 나머지 30년은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야 해요.”

- 김종규 이사장



임형주 사랑의열매와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광복절에 스타벅스의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과 독립 유공자 자손 장학금을 기증받고, 기증식에도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요.

김종규 그렇죠. 그야말로 우리만의 십시일반으로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진정으로 바라는 곳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닮았지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그런 역할이 중요하고요.

임형주 이사장님은 사랑의열매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랑의열매를 평소 어떻게 생각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종규 연말이면 청와대에서 사랑의열매 전달식을 하는 걸 봐왔고요. 사랑의열매의 도움을 받는 젊은이들이 잘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해서 그들도 똑같이 나누고 도와야겠다는 철학을 가지는 일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의열매가 되길 늘 바랐어요.

나눔 철학까지 심어주길

임형주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사장님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요?

김종규 제가 1939년 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어요. 그때도 전염병이 창궐해 아주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 광복을 했지만, 바로 6·25전쟁이 났죠. 1960년에 대학 3학년이었는데 4·19혁명이 일어났어요.

임형주 지난해 4·19문화상 수상도 하셨지요. 4·19 당시 부정선거에 분노해 국회의사당 건물까지 행진을 하셨고요.

김종규 그래요, 그랬지요. 나이 먹은 내가 더 힘들었다. 뭐 이 정도 어려움 가지고 그러느냐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려움이 보다 더 강한 대한민국, 보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되어줄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슬한 어려움을 겪어온 경험자로서 말이에요.

임형주 정말 진정한 어른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90 인생에서 30년은 공부하고, 30년은 생업에 바치고, 30년은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지론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김종규 언젠가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내내 이렇게 회자가 되는군요.(웃음) 60세에 삼성출판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한국박물관협회장,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추진위원장,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 월급 안 받고 돈 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는 마다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말에 책임지려고 노력해온 삶이었죠.

90 인생, 30년은 사회에 봉사해야

임형주 문화유산국민신탁 2대 이사장을 맡으시고, 문화재 지킴이 10만 명을 양성하시겠다고...

김종규 아는 기자가 10만 명 될 때까지는 이사장 못 내려온다고.(일동 웃음)

임형주 사랑의열매도 착한가정, 착한가계 등 생활과 생업 속에서 작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기부자가 많습니다.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과 독립 유공자 자손 장학금을 기증받아 집행하는 두 기관의 홍보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 임형주

김종규 좀들이쌀이란 게 있어요. 옛날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밥하려고 쌀을 풀 때 얼마씩 떼어내 모은 거예요. 그렇게 모은 좀들이쌀을 구걸하러 온 사람한테도, 시주하러 온 스님에게도 주고, 지금처럼 수해나 가뭄 등 재난 때 내놓곤 했죠. 문화유산국민신탁뿐 아니라 사랑의열매 역시 많이 있어 나누기보다 자기 쓸 거 아끼며 나누고 도왔지요.

임형주 맞습니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규 껍질이 깨어지는 아픔 없이는 병아리가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보다 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특히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는지 생각하면서요. 부디 모두 용기를 내십시오. 🍀

나란히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한 정원석·이나라 부부

“우리 부부로부터 선한 나눔의 릴레이가 시작되면 좋겠어요!”

기부를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보였고, 기부 후에는 생각보다 더 큰 기쁨과 감동에 당황도 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궈온 성공 가운데 기부라는 목표까지 달성했으니 축하해달라며 맑게 웃는 사람들, 서울 사랑의열매 34번째 부부 아너 회원이 된 정원석·이나라 부부다. 글강은진 사진서범세

댓글로 알게 된 아너 소사이어티

서울 사랑의열매 34번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부국증권 MS센터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원석 씨와 그의 아내 이나라 씨다.

“학창 시절 소액 기부도 해보고 했지만..., 제 의지로 기부해야겠다 마음먹고 가입한 건 네이버 해피빈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매달 20만~30만 원씩 2,000만 원까지 했죠. 누적 기부 1,000만 원을 달성했을 때, 페이스북에 기념 삼아 글을 올리니까 지인이 다음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1억 원을 해보라며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정원석 씨는 1,000만 원과 1억 원은 금액 차이가 엄청나서 처음부터 결심하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을 목표로 기부를 결심하고 나니, 정말 거짓말처럼

일이 더 잘 풀렸다고 웃는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정말 1억 원 기부를 하고 싶다, 해야겠다고 결심하니 돈이 더 많이 벌리더라고요.(웃음)” 정원석 씨는 씩스름하게 웃고 말았지만, 듣는 이에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착한 전개다.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남편 믿어

남편 정원석 씨는 2018년에, 아내 이나라 씨는 2020년 11월에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2년이라는 시간 차가 있다.

“제가 처음 가입하면서 2년 뒤에 아내도 가입하러 오겠다고 했죠. 차마 바로 내년엔 오겠다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웃음) 3~4년은 또 너무 멀고요, 그래서 2년 후에 오겠다고 했죠.”

2년 뒤를 약속했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 이나라 씨가 활짝 웃었다.



그 눈빛엔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이나라 씨는 남편의 기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처음 들었을 땐 걱정스러워 한숨부터 나왔어요.(웃음)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여유가 생기면 기부하자는 남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어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늘 옳은 결정을 해왔기에 기부 결정도 남편을 믿었죠.”
여유가 있으면 사고 싶은 것을 떠올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나라 씨는 정작 기부 후 남편보다 더 큰 감동을 느꼈다고 수줍게 고백했다. 출산 후의 경이로움처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기쁨을 맛봤다면서 말이다.

전 재산 날린 경험도 있다니까요

정원석·이나라 부부는 성공한 젊은 부부의 전형처럼 보인다. 좋은 직장과 높은 연봉, 멋지게 꾸민 집까지, 그저 여유가 있으니 했겠거니 하고 말이다. 맞다. 이 부부는 전형적이라면 전형적 되시겠다. 이 시대를 사는 자수성가형 젊은 부부의 전형 말이다.

“사회 초년생 때 3년간 모은 돈으로 주식에

“기부가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요.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조금씩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갑갑한 세상에서 웃음이 될 수 있는 씨앗일 거라 생각해요.”

- 정원석(남편)



“살다 보면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한 번쯤 들잖아요. 기부는 그런 순간 나를 잡아주는 인생의 획을 긋는 일인 것 같아요.”

- 이나라(아내)

투자했는데 금융 위기로 다 날리고, 열이 받아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또 다 날려서... 전 재산이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원룸을 4명이 쓰면서 생활했다니까요.(웃음)”

극단적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버티고 나니 그 이후엔 별로 힘든 게 없더라. 아내가 가장 먼저 보일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그는 “실패한 그 시절을 다 보고도 도망가지 않은 게 멋지다”면서 의리 있는 여자라며 치켜세운다. 표정에서 고마움이 가득 묻어난다.

가입식, 서로에게 다시 반한 날

부부가 2년의 시간 차로 가입을 했으니, 각자의 가입식에 서로가 초대된 셈이다. 가입식에서 본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로지 부부만 알 수 있는 감정일 테니 말이다. 아내 이나라 씨는 “나를 다시 한번 반하게 하려고 연출하나 싶을 정도로 멋있었다”고 했다. 세상에 다시 한번 반할 정도였다니! 부부의 감정인데도 부럽기 그지없다. 부부는 기부 후 욕심이 사라지고, 내적 평화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그 어떤 지출보다 기쁨이 오래간다고도 했다.

“기부한 후에 회사 계시판에 올렸더니 사장님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압박 아닌 압박이 되었겠죠?(웃음) 부사장님도하시고, 부장님은 월 10만 원 월정 기부도 시작하셨고요. 이런 선한 릴레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부는 주변에 기부 소식을 크게 알리지 않았다. 다만, 인터뷰 등을 통해 나눔의 선한 릴레이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하는 생각에 조금씩 용기를 내는 중이다.

“돈이 많으니 기부도 했겠거니보다는 젊은 부부가 열심히 돈 벌면서 세운 목표를 달성해가는 그 성실함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하라면 큰 응원이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다. 정원석·이나라 부부가 앞으로 달성해갈 미지의 목표들까지 축하하고 또 한다. 부부는 서로에게 다시 한번 반했다고 했던가. 우리는 부부에게 반한다. 멋진 사람들이다. ♡

휠체어에 휠셰어 여행을 달다

HYUNDAI
MOTOR GROUP

KAC
한국공항공사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최대 2주간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누구나 | 항공기반입가능



휠셰어가 장애인의
여행과 장거리이동을
지원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공항공사, 사단법인그린라이트,
사랑의열매가 함께 합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대여형 <휠셰어>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유행하는 카셰어링 서비스에 착안하여,
2018년부터 사단법인그린라이트, 사랑의열매와 함께 전동화 키트를
장애인 여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휠셰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협력으로 2020년부터는 <휠셰어>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동화키트는 수동휠체어에 별도의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 (wheelchair
power assist)로, 전동화키트가 장착된 수동휠체어는 좌우 방향에서
적재 가능하며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 할 수 있어 장애인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휠셰어 홈페이지(wheelshare.kr)에서 알아보는 장소와 시간을
선박여객 예약이고 편이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기세요!



장애인 여행 장벽 없애는 전동화키트 대여 서비스

휠체어에 모터 달고 전 세계 어디든 달려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 여행은 꿈같은 일이다. 수동 휠체어는 밀어줄 누군가 필요하고,
전동 휠체어는 고가에 무겁고 부피가 커서 실어 나르기가 만만찮다. 그린라이트의 전동화 키트
대여 서비스 '휠셰어'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훌륭한 대안이다.

글강보라 사진(사)그린라이트

직접 바퀴를 굴려야 하는 수동 휠체어는 장거리 이동에 적합하지 않다. 전동 휠체어는 이동하기 편리하지만,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사용하는 배터리 때문에 비행기에는 반입이 안 된다. '수동 휠체어 전동화 키트 세어링, '휠세어'(이하 휠세어)는 이런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휠세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으로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여행이나 출장 등 장거리 이동에 제약을 느끼는 수동·전동 휠체어 사용자에게 전동화 키트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카 세어링 방식을 휠체어에 접목한 것이다. 대여한 키트를 바퀴에 끼우면 조이스틱과 스마트 워치 등을 통해 수동 휠체어도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다. 휠체어에 모터만 달면 전 세계 어디로든 훌쩍 떠날 수 있는 것이다.



2

휠체어 타고 달리는 세상을 꿈꾸다

“아내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면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6년 전에 양쪽 어깨 인대 수술을 한 뒤로는 수동 휠체어를 타는 것도 겁나더라고요. 그러다가 휠세어를 알게 되었고, 그 덕에 8년 만에 시집간 딸의 집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동했기에 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도 자제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의암호 자전거도로를 완주해보겠다는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꿈꾸게 해준 휠세어, 정말 고맙습니다!”

-이용자 후기

이동하기 쉽지 않은 휠체어 사용자들은 가벼운 산책이나 여행도 포기하며 살아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휠세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휠세어만의 이 같은 가치와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서울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사회공헌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재단이 서울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2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해 우수한 공유 가치를 창출한 수행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3

1 제주국제공항의 휠세어 존 부스에서 진행되는 대여 서비스. 2019년도부터 한국공항공사의 도움을 받아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대여 장소를 제공받고 있다. 2 휠세어 여행은 단순히 여가를 넘어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3 이용자 김영수 씨는 “밀어주는 사람에게 미안하지 않고 마음껏 자연을 만끽한 여행이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1 코로나19를 대비해 휠체어 방역도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2 유모차와 휠체어가 함께하는 여행. 휠체어가 있다면 손주와 눈을 맞추며 나란히 걸을 수도 있다.

이동의 자유, 휠세어를 이용하세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휠세어 홈페이지의 간단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날짜와 전동화 키트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 서울권역과 부산권역에서는 신청한 곳으로 직접 찾아와 사용법도 설명해준다. 회수 또한 신청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회수한다. 무상 대여 지역 확대로 KTX 광명역, 부산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국제공항 1층 휠세어 존 부스 내 대여소(임의의 제주국제공항 장소 불가)에서도 직접 대여와 회수가 가능하다. 개인당 연간 최대 대여일은 20일이며, 국내는 1회 최대 10일, 해외 1회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대여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에 운영하고 있는 전동화 키

트와 수동 휠체어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가정과 개인 보유 차량도 세척·소독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227가정과 180대 휠체어, 66대 차량이 휠세어의 방역 혜택을 받았다.

휠세어로 두근두근 내 인생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휠세어를 이용한 57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착용감, 배터리·보조 바퀴 사용감 등 이용 만족도에서는 90% 넘는 이용자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후기 게시판에는 “고교 동창들과 40주년 기념 수학여행을 떠났다”는 가슴 찡한 사연부터 “60 평생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다”는 설레는 소감으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축복이다. 휠체어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휠세어를 만나면서 자유와 행복을 꿈꾸게 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휠세어의 존재 가치는 차고 넘친다. 🍀



3



4

3 한쪽 다리를 잃고 비행기 타는 건 꿈도 못 꿔다는 이용자가 보내온 제주 여행 사진 4 코로나19로 대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 차량 소독 서비스를 진행했다.



“도움을 넘어
도전하는 삶으로”

그린라이트 오소영 매니저

“휠세어 덕분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늘었다”는 후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이 전동화 키트로 신체 핸디캡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라이트는 그런 멋진 일을 곁에서 돕겠습니다. 도전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10년 연속 돼지 저금통 기부해온 고성군 심재술 주무관

“작은 동전 하나도 어려운 이웃의
희망이 되어준답니다!”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돼지 저금통 기부가 어느새 10년을 채우고 이제 평생토록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작은 동전 하나도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 수 있기에 오늘도 저금통에 돈을 넣는다.

저금통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책상 위의 나눔 동반자

고성군 행정과에서 근무하는 심재술 주무관은 올해도 어김없이 1년 동안 모아온 80여만 원이 든 돼지 저금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1년 동안 모은 돼지 저금통을 기부해왔다. 근무하고 있는 책상 위에 놓아둔 돼지 저금통은 심재술 주무관에겐 나눔의 동반자인 셈이다.

“우연한 기회에 길을 가다 정치자금을 모금한다며 저금통을 나눠주더라고요. 그걸 하나 받아와서 동전을 넣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치자금 주긴 그렇고...(웃음) 군청 주민생활과로 가져갔어요. 거기로 가져다주면 사랑의열매로 가져거든요.”

돼지 밥 만드는 재미

월급 생활자의 수입이야 뻔하니 아무리 돼지 저금통이라도 어떻게 기부금을, 아니 돼지 밥을 만드는지 궁금했다. 심재술 주무관은 저금통에 넣는 돈을 돼지 밥이라 불렀다.

“월급에서 얼마 툭 떼어 넣는 건 아니고요, 숙직하고 나면 나오는 숙직비도 넣고, 이쪽 지방에선 결혼식에 가면 답례로 1만 원씩 봉투에 넣어 하객에게 줍니다. 그런 돈도 넣고, 또 일부러 하이패스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통행료 내고 잔돈을 거슬러 받기도 해서 넣곤 합니다.”

처음엔 그도 얼마나 모을지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늘 저금통을 열어보면 예상보다 많았다고. 물론 저금통 크기도 10년 동안 점점 커져왔다.

저금통 기부 평생 이어갈 터

심재술 주무관은 올해 6월 퇴직을 앞두고 있다.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헌신해온 그는 퇴직 후에도 돼지 저금통 기부를 이어갈 생각이다. 자신이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부밖에 없다면서 말이다.

“처음 기부를 시작할 때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친구한테 기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든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원, 1,000원 작은 돈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받는 사람들에겐 작으나마 힘이 될 것 같아요. 돕고 도움을 받는 것도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심재술 주무관은 자신도 100원짜리 동전이, 1,000원짜리 지폐가 조금 부끄러웠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100원도, 1,000원도 받는 사람에겐 용기를 내게 되는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으며,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고 작은 기부에 용기를 내라”고 말한다. 먼저 경험한 이의 소중한 조언이다. ♣



10년째 매해 돼지 저금통을 기부하고 있는 고성군 심재술 주무관

여성 아너, 나눔문화에 한 획을 긋다

W아너 500번째 회원 탄생!

여성 아너 500호 회원이 탄생했다. 2009년 첫 여성아너 가입 이후 1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W아너는 외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여성 기부자 모임으로 발전했다.

클 이선희 사진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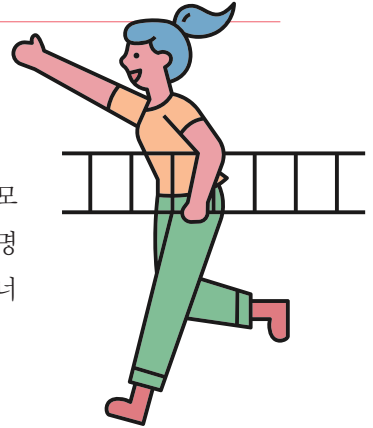


배우이자 음식 사업가로 활동 중인 김나운 씨가 아너에 가입하면서 여성 아너 회원 모임인 W아너 소사이어티 500호의 주인공이 되었다. 지난 11월 25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김나운 씨와 가족이 참석했으며, 송주은 W아너 리더(BT&I 대표)와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함께했다.

김나운 씨는 가입식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 ‘눈 내리는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남긴 내 발자취가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처럼 언제나 깨끗한 눈길을 걷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의 기부금은 보육 시설 아동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쓸 예정이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W아너



여성 리더

2017년 여성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만든다는 취지로 여성 고액 기부자의 모임인 W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을 발족했다. 이후 각 지역의 W아너를 대표하는 18명의 리더를 선출해 ‘W아너 리더 모임’을 진행했다. W아너 리더들은 매년 여성 아너 소사이어티 활성화를 위한 회의, 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꾸준히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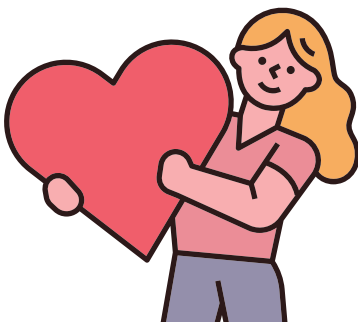


사회문제

W아너 리더는 회원들이 지닌 역량과 자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관심을 기울인다. 여성 관련 사회복지 현장을 찾아 직접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명절 지원 꾸러미 나눔 행사,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등 봉사 활동도 진행한다.

W행복 기금

W아너 리더를 비롯해 여성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과 여성 관련 기관을 지원한다. 사회복지법인 ‘윙’에 여성 자활을 돕는 소셜 키친,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에 마을 속 상담형 카페 지원과 위기 청소년을 위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W아너 리더십 포럼

‘W아너 리더 모임’이 ‘W아너 리더십 포럼’으로 바뀌었다. 나눔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해 연사들도 강연을 들으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회원 간 네트워킹 활성화, 여성 및 사회복지 현장과 교류하는 한층 강화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나만의 자산에서 사회를 바꾸는 희망으로

무형자산을 기부하는 착한권리

잘 키운 저작권 하나면 후손까지 이득을 볼 수 있는 시대다. 저작권으로 큰 부를 쌓을 수 있기에
내 손에 있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내려놓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무형자산 기부가
나눔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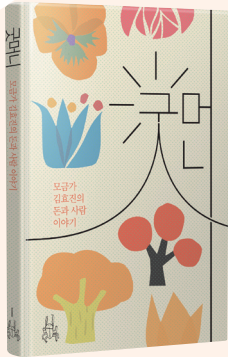
지난 11월 19일 진행된 사랑의열매 김효진 전략기획본부장의 <굿머니> 인세 기부
(왼쪽부터)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김효진 전략기획본부장, 예중석 회장, 신혜영 자원개발본부장

세상에서 가장 착한 소설가

동화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매슈 배리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소설가로 불린다. 소설의 모든 저작권을 영국 오먼드 아동병원에 기부한 것. 외국에는 저작권, 특허 기술, 산업 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무형자산 기부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저작물 기증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나눔 사례 등에 국한되어 있다. 출판, 공연, 음원 등 저작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기부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세상을 바꾸는 큰 결심, 착한권리

사랑의열매에도 저작권, 산업 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권리 자체를 기부하는 착한권리 모금 프로그램이 있다. 착한권리 기부 방식은 크게 권리 일체를 기부하거나, 일정 기간 또는 일정 부분만 권리를 기부하는 권리 양도, 권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부하는 권리 약정으로 나뉜다. 실물 자산이 없더라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으며, 기간이 한정된 약정 또는 양도인 경우 정해진 기간 이후에도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굿머니〉 인세를 기부한 김효진 사랑의열매 전략기획본부장

지난해 11월에 발간한 〈굿머니〉는 20년 넘게 모금활동을 해온 현장 모금가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다. 김효진 전략기획본부장이 경험한 돈의 세계, 즉 기부와 모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출판사 이소노미아와 함께 세상에 선보였다. 출간 후 김 본부장은 인세를 착한권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했다.

MINI INTERVIEW 김효진 전략기획본부장

Q기부를 결정한 계기와 다양한 기부 방법 중에서도 ‘착한권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출간한 책 〈굿머니〉는 제가 쓴 글이지만 온전히 제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열매 직원들과 기부자들에게 얻은 배움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착한권리는 제가 모금본부장으로 일할 때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 선택했습니다.

Q기부를 망설이는 분들, 또는 ‘착한권리’처럼 색다른 기부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기부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많은 고민과 결정을 하고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막상 기부하려고 하면 꼭 돈 쓸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보통 기부를 하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하고 나면 세상에 무언가 기여하고 있다는 자기만족감이 생깁니다. 나눔은 착하고 선한 사람만 하는 천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분이고, 경제활동의 하나죠.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수록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디지털 싱글 ‘슈퍼스타’(함께 부르기) 음원 수익금 전액 기부한 가수 이한철

지난해 2월 가수 이한철 씨가 자신의 대표곡 ‘슈퍼스타’를 편곡해 코로나19 응원송으로 세상에 공개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한철 씨는 해당 음원 수익금을 전액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또한 사랑의열매 코로나19 극복 응원 챌린지 ‘슈퍼스타 챌린지’에도 음원 사용을 허락해 많은 사람에게 활력과 용기를 주는 사회적 이벤트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착한권리 도서 부문 1호 이소노미아 출판사

이소노미아는 지난 2018년 착한권리 협약식을 맺었다. 인문 시리즈 ‘인류 천재들의 지혜 시리즈’로 발간되는 책의 정가 중 5%를 사랑의열매에 기부한다. 현재 출간된 버지니아 울프의 〈why〉, 이마누엘 칸트의 〈굿월〉, 〈타인의 행복〉의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



제너럴바이오

헌신을 넘어 명예로운 기부를 실천하다

제너럴바이오가 만든 나눔과 성장의 선순환

함께 걷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다. 때로는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이웃과 행복한 동행을 지향하는 제너럴바이오는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 글강보라 사진제너럴바이오

제너럴바이오는 마스크와 지급 세정제를 기부하며 취약 계층의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보탤다.





나눔은 사랑이자 행복이다. 나눔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주고받는 행위 자체만으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제너럴바이오의 나눔에는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다. 바로 명예다. 제너럴바이오 서정훈 대표는 20018년 12월 아너 소사이어티의 전국 2,000번째 회원이기도 하다.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로 회사와 대표가 선보이는 나눔 시너지에 혼훈함이 더해진다. 나눔의 실천이 더해질수록 제너럴바이오의 자긍심 또한 높아진다. 기부를 명예로운 실천으로 여기는 철학이 있기에 따뜻한 사회 공헌 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

행복한 동행으로 아름다운 가치 창출

2007년 설립한 제너럴바이오는 천연 원료를 활용한 신기술과 바이오 신소재 관련 특허 기술로 품질이 우수한 생활용품과 화장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바이오 전문 기업이다. 2015년에는 공정 플랫폼 '지킴'을 설립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제너럴바이오의 사훈은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가치 창출'이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서 기업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음을 새기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 장애인, 저소득층, 이민국, 고령자 등을 다수 고용해 취약 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실제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편의를 위해 통근 버스와 사택을 제공한다. 그 진심을 인정받아 제너럴바이오는 2018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바 있다. 2019년에는 비영리 재단 '지킴 재단'을 설립해 낙후 지역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미국 대표 비즈니스 잡지 중 하나인

- 1 매년 겨울,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후원하는 제너럴바이오
- 2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서정훈 대표





제너럴바이오의 서정훈 대표가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2,000번째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리얼 리더스(Real Leaders)〉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100인'으로 서정훈 대표를 선정하기도 했다.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생활 제품 개발과 장애인 및 취약 계층 근로자 고용 정책이 인정받은 것이다.

질병·재난에 취약한 소외 계층 위한 맞춤 기부

제너럴바이오의 나눔 실천은 최근 들어 한층 탄력이 붙었다. 2019~2020년 지역사회에 전달한 금액만 약 13억 원에 이를 정도다. 특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때 바이러스에 취약한 소외 계층을 위한 마음이 유난히 빛났다. 제너럴바이오가 사랑의열매에 후원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전북을 시작으로 경북·경남·부산·울산 등의 경로협회,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한부모 시설에 전달되었다.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손 소독제, 누룽지, 유헤비누, 핸드 워시, 물티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세트를 이재민 구호 물품으로 전달했다. 또 폭염을 대비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성 크림을 한부모와 장애인 시설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기적절한 맞춤 기부 덕에 어려운 이웃들도 개인위생에 신경 쓰며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었다.





나눔이 빛나는 양질의 우수 기업

제너럴바이오는 상생의 가치를 더하며 양적으로도 급성장했다. 2017년부터 미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에 제품 수출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580만 달러(약 64억 원) 이상의 수출 실적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그 결과 2020년 한국무역협회·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2019년 '3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데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비단 양적인 성장만은 아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수평적인 조직 문화 구축, 폭넓은 복리후생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0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에도 선정되었다. 일찍이 2014년부터 사회적 기업의 날 대통령 표창, 2016년 납세자의 날 장관 표창, 2017년 무역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질적 기반을 닦아온 결과였다. 제너럴바이오는 최근 제조 시설과 바이오 R&D센터를 증축하며 생산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품질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개발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면 매출 증대가 무난히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성장과 나눔의 선순환 고리가 함께 작동하며 제너럴바이오만의 행복한 동행이 크고 묵직하게 계속될 것이다. 나눔이라는 따뜻함에 함께하는 즐거움, 여기에 명예라는 자긍심이 더해져 그 어떤 동행보다 탄탄한 힘을 지니고 있다. 나눔이 함께하는 제너럴바이오의 명예로운 성장에 이웃들의 찬사가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 1 지난해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생필품 세트를 전달했다.
- 2 전남 남원시에 위치한 제너럴바이오 전경. 지속적인 성장으로 더 큰 나눔이 가능하게 되었다.



생태 휴양 도시의 진면목 발견 의왕시

의왕시는 수도권 도시치고는 면적이 작은 축에 속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허파'라는 별칭까지 있는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 도시라는 사실! 게다가 레저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근교에서 짜릿한 스릴과 휴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흑자는 의왕만한 곳이 없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글 이선희 사진제공 의왕시청 참고자료 의왕시문화관광사이트(www.uiwang.go.kr/culture)



취향대로 즐기는 의왕 대표 명소



누구나 재밌고 즐거운 곳 레슬레파크

왕송호수를 순환하는 4.3km 길이의 의왕레일바이크, 스카이레일(집와이어), 캠핑장, 조류생태과학관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왕송호수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생태 호수로, 다양한 조류와 물고기를 관찰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겨 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주소 경기도 의왕시 왕송못동로 307 문의 031-345-3534



우리나라 100년 철도 역사를 담은 철도박물관

의왕시는 국내 유일의 철도 특구인 만큼 철도박물관은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5,000여 점의 각종 소품과 자료가 있어 국내 철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국내외 철도와 관련한 실물 차량 전시물이 2,600여 점에 달해 철도 역사 문화 교육장으로서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주소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문의 031-461-3610



전설을 꽃피운 천년 고찰 청계사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하고 고려 충렬왕 때 중창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2000년에는 극락보전의 아미타삼존불 중 관음보살상의 왼쪽 눈썹 주변에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전설 속의 꽃 우담바라가 피어 세간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소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문의 031-426-2348



100년의 역사가 아로새겨진 하우현성당

현재는 작은 본소에 불과하지만 본당 역사 100주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 사제관은 몸체가 석조로 되었고, 골기와 팔각지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20세기 초반에 지은 보기 드문 한·불 절충식 건축양식으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주소 경기도 의왕시 원터야랫길 81-6 문의 031-426-8921

의왕 착한가게거리 1호가 된 '나눔맛집'

백운호수 식당·카페 착한가게 단체 가입

지난 11월 3일 의왕 백운호수 식당·카페 15곳이 경기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동시 가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태며 단체 가입까지 이루어진 것. 벨라포레스타, 명가
누룽지백숙, 명장시대, 백운동, 백운재, 백운장어마을, 산나래한정식, 문화놀
이터 소담꺾리리 카페, 송이향한정식, 전복명가, 청초수물회섭국 백운점, 카
페막시 백운호수점, 카페모우, 코코테로, 평양청류관까지 15곳의 동시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 총 26곳이 가입하며 백운호수 일대는 의왕 착한가게거리 1호
가 되었다. 단체 가입식 이후에도 착한가게 가입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등 여
전히 식지 않는 뜨거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첫 번째 줄 (왼쪽부터) 평양청류관, 카페모우
두 번째 줄 (왼쪽부터) 카페막시 백운호수점,
백운동, 코코테로
세 번째 줄 (왼쪽부터) 산나래한정식,
청초수물회섭국 백운점, 전복명가



MINI INTERVIEW



“어려운 시기에
피어나는 인동초 같은
마음으로 나눔 실천”

이종득 들꽃한정식 대표·
백운호수 상가변영회장·
청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요즘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악재가 무색할 만큼 많은 분이 나눔에 동참하고 있지요. 저 역시 착한 가게는 물론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나눔수록 제 마음이 더 따뜻해져 스스로에게 기부하는 것 같아요. 착한가게 대표님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백운호수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나눔이 가득한 착한가게를 많이 찾아와주세요.



상호명	착한가게 연락처
식당	
가나안덕 백운호수점	031)422-5292
구들장	031)426-2990
들꽃한정식	031)426-5779
명가누룽지백숙	031)425-0031
백운동	031)347-6909
백운장어마을	031)425-9291
백운재	031)422-6909
산나래한정식	031)423-3788
선일목장	010-9896-2798
송이향한정식	031)426-9181
영산강민물장어 청계본점	031)426-3311
이우철한방누룽지삼계탕	031)424-8890
자연 그리고 어반	031)442-4222
전라도팔바지락칼국수	031)426-5801
전북명가	031)425-0021

상호명	착한가게 연락처
청초수물회섭국 백운점	031)423-9522
평양청류관	031)426-1289
카페	
넬라포레스타	031)421-0061
명장시대	031)422-1883
문화놀이터 소담갤러리 카페	031)426-3108
카페막시 백운호수점	031)426-0250
카페모우	031)425-0506
코코테로	031)421-5550
화훼농원	
금강꽃농원	031)422-6429
장난감가게	
토이빌리지 의왕점	031)422-4999
편의점	
GS25 의왕청계사점	031)425-9579

제8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여러분에게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일상 속에서 나눔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보다 자유로운 나눔의 표현이 가득하던 공모전이었다. 글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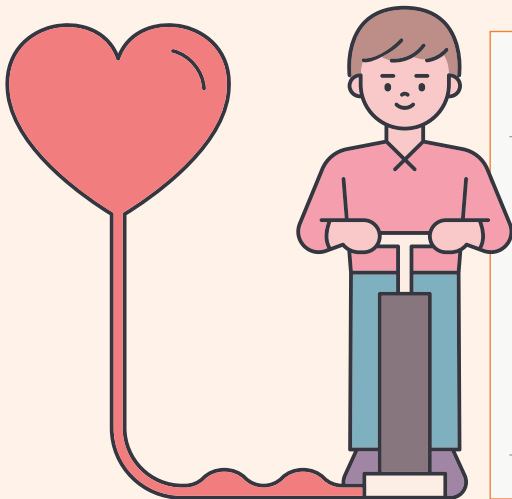
공신력 있는 나눔공모전

2020년 제8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나눔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참여와 실천 중심의 인성 교육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과 민주 시민 역량 강화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2013년도부터 사랑의열매가 주최해온 나눔공모전이다. 현재까지 개인과 학교 등 누적 응모 작품만 11만 6,457건에 달하고, 시상상은 모두 1만 98건 이루어졌다. 이번 공모전은 ‘나눔은 ○○이다’라는 주제로, 슬로건/ 글쓰기(문예)/ 만화·웹툰/ 창작 그림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응모가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많은 관심 보여

이번 공모전은 나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나눔의 가치가 작품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각 분야 전공 교수 등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진행했으며, 네티즌 표절 심사까지 엄격하게 검증한 후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25일에 발표한 수상자는 개인상 대상 4명, 최우수상 40명 등 4개 부문에 걸쳐 모두 1,084명이었다. 전년 대비 접수작이 무려 1,000여 건에 달해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고, SNS 수상 인증 이벤트로 기쁨을 대신했다. 🍀

SNS 인증 사진으로 만나보는
제8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수상자들 이모저모



초등 고학년 글쓰기(문예) 부문 대상
서대전초등학교 4학년 민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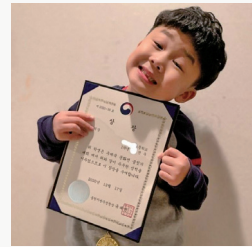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엄마가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에 참여해보자고 이야기 해주셔서 우리 가족의 나눔 실천을 하고자 참여했습니다.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와 내가 대상이라니 믿기지 않아요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 부모님과 함께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했는데 그 나눔이 내게도 이런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구나 다시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만큼~ 가족과 나눔을 실천하며 맑은 웃음이 세상을 더 맑고 밝게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슬로건 부문 입선
아름초등학교 3학년 윤효주



초등 저학년 글쓰기(문예) 부문 입선
아산복수초등학교 1학년 박선우



초등 저학년 슬로건 부문 최우수상
옥곡초등학교 4학년 조현우



중학교 글쓰기(문예) 부문 우수상
배화여자중학교 1학년 오채현



제2회 사랑의열매 학술상 시상식 개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의 장

지난 12월 18일 ‘제2회 사랑의열매 학술상’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시상식 후 온라인에서 수상 논문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면서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글 김현정



수준 높은 연구 성과 이어져

사랑의열매 학술상은 나눔문화 확산을 주제로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일반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박사 학위 취득자)의 논문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간 공모가 이뤄졌으며, 심사를 거쳐 총 일곱 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운호 교수는 “작년 보다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으며, 논문 수준 또한 무척 높았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연구자분들에게도 다양한 연구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들은 기부자의 활동 패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달라진 나눔문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기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연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우리나라의 나눔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mini interview

나눔문화 확산 주제 미게재 전문 부문



대상 권재기

(개인 나눔 행동의 잠재전이분석(LTA)을 통한 중단적 변화-누가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가?)

“코로나19로 많은 활동이 중단됐는데 공모전 덕분에 공부하고 연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나눔 경험이 없는 집단과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같 있다는 거예요. 장애 유무나 소득수준이 지속적인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나눔은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시도 를 해야 지속하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나눔문화 주제

대상 유정은

(사회에 대한 위협 혹은 생명에 대한 위협, 코비드-19 (Covid-19)를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들의 돈과 시간의 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한양대학교 유정은 외)

“저희 팀이 오랜 시간 연구를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마침 주제와 잘 맞아서 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 양상을 분석했어요. 개인의 건강보다 사회적 맥락을 강조할 때 사람들이 나눔과 기부에 더 동참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번 연구가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에는 학대 피해 아동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손길을 기다리는 펀딩을 진행했다. 글 이선희 자료 사랑의열매

믿고 보는 펀딩 후기

"아이들이 짊어진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픈 기억을 보듬어주는 손길

학대가 끝났어도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그루터기'에서는 학대받은 아이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집단 놀이 치료를 지원하는 펀딩을 진행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총 217만 1,000원의 성금이 모였다. 여기에 사랑의열매가 더한 매칭금까지 총 270여만 원을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전달했다.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펀딩을 통해 모인 성금은 학대 피해를 입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7명 아이에게 7개월간 심리 정서 치료를 하는데 사용한다. 이번 치료를 마친 후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꾸며 웃음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귀여운 열매동이 이모티콘 데려가세요

크라우드펀딩에 3,000원 이상 기부한 모든 기부자에게 새로 출시한 열매동이 이모티콘을 제공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나눔을 실천하고 귀여운 이모티콘도 받으며 기부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보면 볼수록 귀여운 열매동이 이모티콘, 얼른 데려가세요~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https://chest.or.kr>) → 캠페인 → 크라우드펀딩



Q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③ 사랑의열매와 UWW가 준비하는 미래

아시아 나눔 생태계 성장을 주도하며 변화의 중심에 서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참 많은 것이 바뀐 해였다. 비즈니스 세계뿐 아니라 ‘소셜 섹터’에서도 플랫폼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세계공동모금회(United Way Worldwide, UWW)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로서 동남아시아의 사회적 가치 창출 플랫폼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아시아의 소셜 임팩트 플랫폼 설계 협력

동남아시아는 지난 1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며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비영리단체 등 이른바 ‘소셜 섹터’의 지속 가능한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한편 사랑의열매는 성장하는 아세안 시장에서 체계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정립하는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2010년부터 세계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아태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시아의 나눔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사랑의열매와 세계공동모금회는 긴밀한 교류를 통해 동남아 내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파트너들이 체계적인 모금, 기부자 관리, 임팩트 산출의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유나이티드 웨이 동남아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두 조직이 손을 맞잡으며 글로벌 파트너십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동남아 네트워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올해부터 사랑의열매는 세계공동모금회 유나이티드 웨이 동남아 허브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동남아시아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주요 소셜 섹터 기관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제 표준 사업 수행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조직 성장 경험을 집결해 만든 콘텐츠를 동남아 네트워크에 제공하며 발전을 돕는다. 아태교육센터에서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눠 동남아 네트워크를 지원·협력할 계획이다.

- 공동모금 제도 유형 및 정책적 의미(아세안 현황과 지역 니즈 확인)
- 동남아시아 나눔 생태계 확립을 위해 기업, 고액 기부 프로그램, 배분 사업, 마케팅, 회계 등 모금 상품과 전문성, 시스템 확립을 위한 교육 협력
- 이노베이션 실험의 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러 국가의 공동모금 제도 모범 사례 등을 유나이티드 웨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새로운 가족이 된 동남아 국가에 전달하며 빠른 성장을 이끌고자 한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해외 원조를 받는 국가였다. 부단히 노력해 해외 원조로부터 자립해 나눔 생태계를 구축한 것은 물론, 세계공동모금회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의 공동모금 제도를 세계에 전파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나눔을 선도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



사랑의열매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2018 Asia-Pacific Philanthropy Summit)

새로운 협약 체제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동남아 얼라이언스

유나이티드 웨이 동남아 허브로 묶이는 동남아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다. 세계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의 자립을 준비하며 모금, 기부자 관리, 마케팅 등 필요한 지식과 모범 사례를 체득해 현지화하도록 돕는다. 사랑의열매는 동남아 얼라이언스의 디자인, 조직화, 활성화를 위해 아태교육센터의 교육 기능 확장 등을 추진 중이다.



2014년에 진행한 아태 회원국 직원 초청 교육 모습



2018년 일본 공동모금회에 파견 교육 나간 사랑의열매

중앙회



정세균 국무총리,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12월 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랑의열매 예중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이 자리한 가운데 성금을 기부했다. 이후 이어진 환담에서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예년보다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이 감소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많은 국민이 나눔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랑의열매 등 나눔 기관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사랑의열매 전달식 참석

12월 7일 의장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랑의열매 전달식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찾아온다”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기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랑의열매 예중석 회장은 “기부금이 세금 역할을 보완해준다는 인식을 넓혀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웃사랑 성금 기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월 11일 연말연시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대법원장실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사랑의열매 예중석 회장,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이 참석해 이웃 사랑의 상징인 사랑의열매를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나눔 캠페인에도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사랑의열매 모형으로 만든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배우 임시완, 생일 맞이해 팬덤 이름으로 기부

JTBC 수목 드라마 <런 온>에서 기선겸 역을 맡아 선풍 가득한 로맨스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 임시완이 12월 1일 팬덤 ‘스완’ 이름으로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자신의 33번째 생일을 맞아 스완의 응원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자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임시완은 “오랜 시간 팬들이 보내준 따뜻한 성원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데 써달라고 말했다.

중앙회



현대자동차그룹, 2020년에도 250억 원 기탁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이 사랑의열매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으로 250억 원을 전달했다. 2003년부터 성금을 전달해 2013년부터는 매년 250억 원을 전달하며 18년간 총 3,090억 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사회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 사업 지원, 아동·청소년 인재 육성, 사회 취약 계층의 자립 역량 강화와 경제적 기반 마련,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의 이동 지원에 사용하게 된다.



신한금융그룹, 2년 연속 캠페인 1호 기부자

나눔캠페인 출범식이 있던 지난 12월 1일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이 이웃사랑 성금 130억 원을 전달하며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희망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가 되었다. 2019년보다 10억 원을 증액했으며, 2년 연속 기부금을 증액하며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은 “위기의 시기지만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리라 확신한다”며 “언제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G그룹, 120억 원 전달하며 나눔캠페인 동참

12월 8일 LG그룹(회장 구광모)이 성금 120억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LG 이방수 CSR팀장(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금은 사회 취약 계층의 기초 생계 지원, 주거 및 교육 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SK그룹, 21년째 이웃사랑 성금 기탁

12월 17일 SK그룹(회장 최태원)이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기부하며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1999년 사랑의열매 연말 집중모금 캠페인에 첫 기부를 시작한 후 매년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매년 120억 원을 기부하며 변함없이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구성원은 물론 이웃, 사회의 행복까지 추구하는 게 SK 경영 철학의 핵심이다”며 “SK는 앞으로도 행복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회



하나금융그룹, 이웃사랑 성금 100억 원 기부

12월 10일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의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이 있었다. 전달식에서 김정태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충격을 동반한 사회 변화의 시기에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금융그룹의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미션처럼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모두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나눔 실천을 밝혔다.



포스코그룹, 21년째 나눔 실천

포스코그룹(회장 최정우)이 사랑의열매에 100억 원 성금을 기탁했다. 포스코 80억 원,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각각 4억 원, 포스코ICT 2억 원, 포스코엔텍, 포스코터미널 각각 1억 원 등 그룹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 포스코는 1999년부터 성금을 전달했으며, 2004년부터는 그룹사까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1년간 누적된 성금은 1,620억 원에 달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롯데그룹,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참여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연말 이웃사랑 성금 70억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롯데그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성금 역시 지역사회의 육아 환경 개선과 아동 행복권 보장 사업, 긴급 재난 구호 분야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1999년부터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누적된 성금만 9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효성그룹, 10억 원 기부하며 이웃사랑 실천

12월 7일 효성그룹(회장 조현준)이 사랑의열매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2003년부터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부터 매년 10억 원을 전하며 연말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새해에는 소외된 이웃들이 좀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관장 7명, 나눔리더 단체가입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이은주) 소속 노인종합사회복지관장 7명이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했다. 이번 나눔리더 단체가입은 배분사업을 담당하는 복지 현장 기관장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이은주 회장은 “관장님들과 나눔리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복지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배분사업을 진행하고, 사랑의열매와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곳에 따뜻함을 전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튜버 쏘영, 착한유튜버 1호 기부자

인기 유튜버 쏘영(SSoyoung, 배우 한소영)이 ‘착한유튜버 릴레이 기부’ 캠페인 1호 기부자가 됐다. 착한유튜버 릴레이 기부 캠페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가 12월 1일부터 시작한 캠페인으로, 유튜버 채널 크리에이터들이 릴레이로 기부에 동참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유튜버 쏘영은 “제 참여를 시작으로 더 많은 유튜버가 함께 힘을 모아 나눔이 희망으로 이어지면 더없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르노삼성자동차, 사회복지 기관에 전기차 110대 후원

르노삼성자동차(대표 도미닉 시노라)가 부산 사랑의열매에 친환경 전기 자동차 110대를 기증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2019년도 임금 협약을 마무리하며 공동 명의로 조성한 사회 공헌 성금으로 마련한 차량이다. 지원받은 차량은 트위지 100대, SM3 Z.E. 10대로 부산 지역 복지시설 6개소와 사회적 경제 조직 6개소에 전달했다. 이번 차량 기증으로 부산 지역 곳곳에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아이에스동서(주), 성금 3억 원 기탁

지난 12월 3일 아이에스동서(주)(회장 권혁운)가 코로나19로 힘든 겨울을 보내는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3억 원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산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권혁운 회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성금이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건설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구



대구5호 착한마을 탄생, 북구 구암동

구암동이 대구 5호 착한마을이자, 2020년의 첫 착한마을로 지정됐다. 구암동은 2018년 7월 착한가게 1호점인 부지갱이삼겹살(대표 최영란)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2개 업소가 '착한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구암동이 착한마을로 선정돼 아주 기쁘고 뿌듯하다"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이 넘치는 대구 북구로 거듭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에스엘서봉재단, 1억 4,000만 원 상당 차량 5대 전달

에스엘서봉재단(이사장 이충곤)이 대구 사랑의열매에 차량 5대를 전달했다. 차량은 청소년·노인·다문화 분야의 총 5개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으며, 활발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2005년 12월에 설립한 에스엘서봉재단은 지난 15년간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쳐왔다. 이충곤 이사장은 "앞으로도 에스엘이 대구 대표 기업으로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



스카이72, 나눔캠페인 성금 5억 원 쾌척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72)가 인천 사랑의열매에 성금 5억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스카이72가 2005년 개장 때부터 매년 개최하는 자선 행사 '스카이72 러브오픈'을 통해 조성한 것이다.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 바다 코스 매출액 전액과 캐디 및 임직원 기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부금 등을 포함한다.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기부 심리 위축을 우려해 2019년보다 2억 원 늘어난 금액으로, 60여 개 사회사업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종합어시장, 우리구 착한기업 중구 1호 가입

인천종합어시장(이사장 유기봉)이 인천시 10개(군) 중 첫 번째로 우리구 착한기업에 가입했다. 기부금은 중구 연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유기봉 이사장은 "그동안 인천종합어시장을 이용해주시는 인천 시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입을 결심했다"며 "코로나19 종식으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어시장이 하루빨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



(주)그린알로에, 나눔명문기업 광주 2호

알로에 전문 기업 (주)그린알로에(대표이사 정광숙)가 광주 2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주)그린알로에는 2020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알로에 건강기능식품 부문에 3년 연속 수상한 훌륭한 기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주)그린알로에 박원민 부사장은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빈곤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우위니아그룹, 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대우위니아그룹이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참여해 광주 사랑의열매에 성금 2억 493만 원을 기탁했다. 대우몽베르컨트리클럽 한유진 부회장이 7,000만 원, 위니아담채 4,000만 원, 대우에이텍과 대우에이피, 위니아에이드에서 각각 3,000만 원, 대우에이텍 임직원이 493만 원을 더해 마련한 성금이다. 그룹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온정이 확산되도록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전



야호메딕스(주) 전병주 대표이사,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야호메딕스(주) 전병주 대표이사가 대전 84호 아너 회원이 됐다. 전병주 대표이사는 2020년 12월 1일 환갑을 맞아 마음에 품어온 기부를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이번 가입으로 대전 사랑의열매는 희망2021 나눔캠페인 시작 첫날 아너를 맞이했다. 전병주 대표이사는 “사업을 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은분의 응원과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면서 “이번 기부로 남은 인생 동안 나에게 칭찬을 해줄 만한 일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나은행 총괄대표 및 지역대표, 나눔리더 동시 가입

대전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 기관인 하나은행 총청영업그룹 윤순기 대표와 하나은행 대전세종영업본부 이무성 지역대표,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이성진 지역대표가 나눔리더에 동시 가입하며 대전 사랑의열매 희망2021나눔캠페인 기간 첫 나눔리더 주인공이 됐다. 윤순기 총괄대표는 “지역 은행 대표로서 대전 시민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고자 동참하게 됐다”며 “함께 마음을 모아준 지역대표님들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2020 이웃사랑 유공자 시상식 개최

지난 12월 17일 2020 울산 사랑의열매 이웃사랑 유공자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웃사랑 실천을 유도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2020년 연중 모금 활동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했다. 울산광역시시장상 13건, 울산광역시의회시장상 5건, 울산광역시교육감상 4건, 사랑의열매 대상(중앙) 1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9건으로 총 32건의 시상이 이루어졌다.



대한유화(주), 통 큰 기부로 나눔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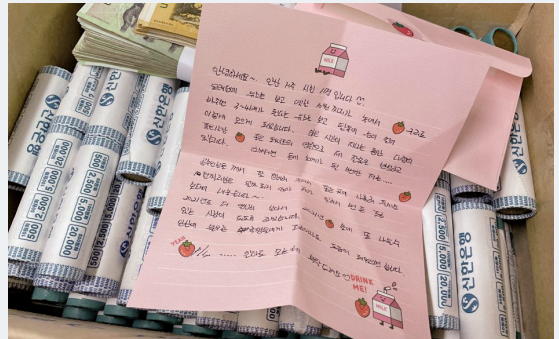
대한유화(주)(대표이사 사장 정영태)가 울산 사랑의열매에 희망 2021나눔캠페인 성금 20억 원을 쾌척했다. 울주군과 남구에 각각 5억 원, 울산시에 10억 원을 배분하며, 소외 계층 지원과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대한유화(주)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해왔으며, 2017년 연말부터는 매년 고액의 성금을 전달해오고 있는데, 이번 희망2021나눔캠페인에서는 나눔온도를 38℃ 더 올려주었다.

경기



기우회, 취약 계층 위해 성금 전달

지난 12월 21일 경기 지역 사교 모임인 기우회가 경기 사랑의열매에 성금 1,500만 원을 기탁하며 사랑을 실천했다. 성금은 코로나19와 추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우회 회원 174명 모두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재정 기우회 회장(경기도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안다”며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부금과 편지로 사랑 전한 안산시 기부 천사

지난 12월 14일 안산시청 앞에 설치된 사랑의온도탑 앞에서 동전 7,007개 등 현금 300여만 원이 들어 있는 상자가 발견됐다. 상자 속에는 ‘안산에 거주하는 시민’이라고 쓰인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시민은 편지에서 “오래전 10원짜리를 녹여 구리로 바꾸면 값이 3~4배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탐욕스러운 마음에 동전을 모았지만, 아내의 영향으로 반성하게 됐다”며 “안산의 불우한 학생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연천 백학면새마을부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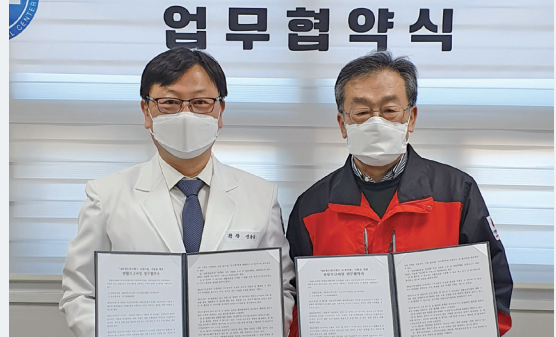
연천 백학면새마을부녀회가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백학면새마을부녀회는 2007년부터 마을 기업인 학마을식당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 5,000만 원을 지난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기탁하며 연천군 1호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또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아울렛, 이웃사랑 성금 기부

지난 12월 18일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아울렛이 연말맞이 이웃사랑 성금 1억 원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파주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을 나누는 반찬 사업'과 낙후된 주거지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렛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301네트워크펀드 조성 사업 협약 체결

지난 11월 30일 강원도 삼척의료원(원장 신동일)은 착한ilter 가입과 더불어 강원 사랑의열매와 301네트워크펀드 조성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301네트워크펀드는 임직원 80여 명의 정기 후원과 기업 후원으로 자금을 조성해 저소득 취약 계층 환자에게 안정적인 보건 의료 복지 통합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원도 삼척의료원이 추천한 임원 환자 중 강원 사랑의열매가 선정한 대상자에게 보장구, 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춘천 퇴계자연석돌구이, 착한가게 캠페인 동참

강원 사랑의열매가 춘천 퇴계자연석돌구이(대표 이희숙)에 착한가게 제1275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퇴계자연석돌구이는 남춘천역 앞에 위치한 삼겹살 전문점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희숙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충북



(사)충북경제포럼, 성금 3,000만 원 쾌척

지난 12월 8일 (사)충북경제포럼(회장 차태환)이 창립 22주년을 기념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000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사)충북경제포럼은 도내 기업인들과 교수, 연구자 등 경제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충북 사랑의열매 노영수 회장은 “충북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 지역 경제 단체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정성을 모아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마음을 전했다.



(주)원건설, 충북 나눔명문기업 2호 선정

충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12월 15일 (주)원건설(회장 김민호)에 나눔명문기업 2호 인증패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옥천의 한국드라이베어링(주)이 충북 최초 나눔명문기업에 선정된 후 1년 만에 2호가 탄생했다. (주)원건설은 1984년 설립한 충북 향토 기업으로, 2004년부터 연중 지정 기탁과 연말 이웃 돕기 성금을 통해 꾸준한 기부를 실천해왔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 금액은 약 2억 2,000여만 원에 달한다.

충남



이유진 원장, 충남 100호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

천안 입구정KM성형외과의원 이유진 원장이 지난 12월 4일 충남 100호 아너에 가입했다. 2012년 충남 1호 아너 가입 이후 9년 만에 탄생한 100호 회원이다. 이유진 원장은 가입식에서 “평소 언론과 여러 매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보림씨에스, 보령 1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지난 12월 21일 (주)보림씨에스(회장 정종천)가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면서 나눔명문기업 충남 5호이자 보령 1호로 이름을 올렸다. 정종천 회장은 2017년 충남 72호 아너로 가입한 바 있다. 개인 기부에도 이어 법인 기부에도 동참한 정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희망2021나눔캠페인 참여를 고려하던 중 나눔명문기업 모금 사업을 알게 되어 가입을 결심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북



마스크상사,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기탁

마스크상사(대표 이문회)는 지난 12월 1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7억 7,200만 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를 전라북도청에 전달했다. 기탁한 마스크는 KF94 마스크 및 비말 마스크 각각 118만 8,000장으로 총 237만 6,000장이다. 이문회 대표는 “도내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취약 계층에 마스크를 전달해 코로나19 안정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참고을, 김제시에 이웃 돕기 성금 1억 원 기부

지난 12월 11일 (주)참고을(대표 김윤권)이 이웃 돕기 성금 1억 원을 김제시에 지정 기탁했다. (주)참고을은 나눔명문기업 전북 1호로 해마다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탁금은 저소득 가정의 긴급 복지 지원 사업과 김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 김제경찰서, 김제소방서의 추천을 받아 취약 계층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전남



전남 사회복지시설·단체 428개소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전남 사랑의열매가 지난 12월 15일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으로 마련한 김장 김치는 6,800상자로,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428개소에 전달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직접 김장을 하지 않고 포장 김치를 구입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복지시설에 배분했다.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노동일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 노진영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DSR제강(주),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지난 12월 8일 DSR제강(주)(대표 홍하중)이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1억 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노동일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 허석 순천시시장, 김철 DSR제강(주) 상무이사가 함께 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순천시 이웃과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DSR제강(주) 김철 상무이사는 “매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경북교육청, 난치병 학생에게 따뜻한 희망 전달

지난 12월 7일 경북교육청은 '2020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전달식'에서 모금액 1억 4,432만 171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경북교육청과 경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난치병 학생 돕기 모금 행사를 진행해 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문자 기부, ARS 기부 등 비대면 방식 모금을 추가 실시했으며, 행사에는 지역 교육기관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했다.



(주)블루윈, 직원들이 모은 성금 1,650만 원 기부

경주와 상주, 용인 등지에서 골프장·콘도·위터파크 등을 운영하는 종합 리조트사 (주)블루윈(대표이사 윤재연)이 지난 12월 17일 직원들이 한 해 동안 모은 성금 1,650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주)블루윈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500매 이상의 위터파크 이용권을 기부하고 있으며, 연말 성금 기부, 착한일터 프로그램 참여, 연탄 기부 등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경남



올해만 세 번째 기부한 익명의 나눔 천사

지난 12월 14일 익명의 나눔 천사가 발신 제한 전화와 함께 손 편지 및 기부금 4,652만 7,270원을 모금함에 두고 갔다. 익명의 나눔 천사는 "내 기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매년 기부를 실천해온 해당 기부자의 누적 기부금은 약 4억 2,900여만 원에 달한다. 올해는 코로나 특별 성금 400만 원, 수해 피해 특별 성금 300만 원까지 총 세 번에 걸쳐 기부에 참여했다.



2020년 사랑의열매 차량 전달식 개최

경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12월 16일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차량을 지원하는 '2020년 사랑의열매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받은 기관 중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된 9개 기관에 약 2억 3,800여만 원 상당의 차량 9대를 전달했다. 지원 차량은 어린이 보호차 2대, 승합차 6대, 전통식 원보디 1대로 추후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복지 대상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제주



공무원연금공단·KB국민은행, 업무 협약과 함께 성금 전달
 제주 사랑의열매는 지난 11월 18일 공무원연금공단, KB국민은행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 및 나눔문화 확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KB국민은행이 기탁한 성금 5,000만 원으로 2021년까지 제주 사랑의열매는 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자원봉사자 지원 등 사업 진행에 협력한다. 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아동센터 퇴소 아동 자립 지원금 지원, 생필품·코로나19 예방 희망 선물 상자 지원, 김장 김치 나눔 활동 등이 있다.



나눔캠페인 출범과 함께 1호 기부자 탄생
 지난 11월 30일 제주 사랑의열매는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희망 2021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호 기부자가 탄생해 화제를 모았다. 법인 기부자는 대한한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로 1억 원 상당의 한돈을 기탁했으며, 이 한돈은 사회복지 기관 183개소와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 전달했다. 개인 기부자는 돈사돈 양정기 대표로 성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세종



(주)에프에이 남윤제·흥덕산업(주) 황중분 대표이사, 아너가입
 지난 11월 23일 (주)에프에이 남윤제 대표이사과 흥덕산업(주) 황중분 대표이사가 각각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면서 세종 20호, 세종 21호 아너가 됐다. 황중분 대표이사의 배우자 김윤희 대표는 세종 3호 아너로 이번 황 대표이사의 가입으로 부부 모두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됐다. 남윤제 대표이사는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해야 세종시가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입 소감을 전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희망2021나눔캠페인 참여 독려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이 지난 12월 16일 SNS를 통해 희망 2021나눔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코로나19로 현장 모금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나눔 릴레이 메시지로 대신한 것이다. 이춘희 시장은 “나눌수록 올라가는 사랑의온도탑만큼 세종시도 훈훈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시장의 뒤를 이어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이 나눔 릴레이에 참여했으며, 세종시 주요 명사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중앙
315호



천영익 매일세무법인 대표
“나눔이란 우리 가족에 대한
칭찬입니다.”

서울
301호



박해진 우상건설(주) 대표이사
“나눔이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며,
이것이 곧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302호



김나운 배우
“나눔이란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서울
306호



이상우 이상투자그룹 대표이사
“나눔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입니다.”

서울
307호



임충섭
“어려운 이웃을 돕고, 두 자녀에게
기부를 유산으로 주고 싶어서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서울
308호



차선주 틀플란트치과 대표원장
“나눔은 뺨셈이 아니라 덧셈입니다.”

부산
205호



유호목 에스제이(주) 대표이사
“저의 작은 선행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잘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206호



김은길 케이티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저의 기부금이 의료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지원되어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207·
208·209호



故 이유빈, 이유진·이향영
“우리 아들 유빈이 기쁨으로 하던 사랑
나눔을 엄마가 대신할게요.”

대구
167호



故 신현철
“평소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가
오랫동안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인천
146호



조윤석
“나눔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천
147호



김종석 동화산업(주) 대표이사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고 나누겠습니다.”

인천
148호



정철 태창금속공업(주) 대표이사
"이번 가입을 계기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115호



조진형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버킷 리스트 중 하나이던 '나눔 실천'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광주
116호



홍유길 풍산파워텍 대표이사
"저의 아내 가입이 나눔의 불씨가 되어 광주의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대전
84호



전병주 아호메디스(주) 대표이사
"이번 나눔으로 저에게 '잘했다'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흐뭇합니다."

대전
85호



익명

"작은 나눔으로 모두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86호



정금용 천수당한의원 원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며,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겠습니다."

울산
98·99호



문현철·한미지

자이언트쉬핑엔트레이딩(주) 대표
"뜻과 행실은 위를 따르고, 분수와 복은 아래와 비교하라."

울산
100호



배양규 배양규비뇨의학과 원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낮은 곳을 향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충남
99호



신기민 신기농장 대표

"나눔은 못다 핀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게 하는 거름입니다."

충남
100호



이유진 압구정km성형외과 쌍용점 원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충남
101호



김지찬 태산종합건설(주) 회장

"나눔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조금씩 나눌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남
105호



오재대(주)에이엔티종합건설 대표이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곳에 골고루 전달되기를 바라며,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쁩니다."

경북
122호



최영수(주)피플랜 대표이사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눔을 이어주는 기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경남
130호



김형석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법률가로서 나눔을 실천해 덕(德)자 율(律)자 쓰시는 조부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세종
20호



남윤제(주)에프에이 대표이사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문화를 적극 실천하면 세종시가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21호



황준선 흥덕산업(주) 대표이사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우리 모두의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서울 한용식 강동웨딩KDW 명예회장, 김순옥 강동웨딩KDW 명예회장
- 부산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 인천 신재훈 노현신메디칼의원 원장

- 경기 용재남(주)삼우화학 안전지점 대표이사, 서영자, 강지현 건양대학병원 가정의학과과장, 이신경 오산다운유치원 원장
- 충북 윤인기(주)두성기업 대표이사, 연영만 인성종합건설 회장
- 경남 익명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 대한민국 나눔의 상징 '사랑의온도탑'이 20주년이 되었네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올해 인천시청 앞 광장에 사랑의온도탑이 처음 설치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랑의온도탑의 나눔온도 100.0°C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가는 데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강오우, 인천시 남동구

○ 에너지 가득하고 유쾌하게 진행된 희망2021나눔캠페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소식이 좋았어요. 뮤직비디오에 참여한 직원 17명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칼군무를 선보였고, 열매동도도 예사롭지 않은 춤 실력을 발휘했네요. “아들아 나눔을 부탁하노라~” 노래처럼 저와 가족도 십시일반 나눔에 동참하는 사랑의열매 기부자가 되겠습니다.
-김용산, 경남 양산시



○ 이번 호 〈사랑의열매〉가 한 해의 마지막 소식지라 생각하니 아쉽고 섭섭한 마음에 책장 한 장 한 장을 더욱 소중히 넘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올 한 해도 〈사랑의열매〉와 함께한 덕분에 지친 일상을 잠시 잊고,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모쪼록 내년에도 따뜻한 기사로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랑의열매〉로 기억되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조석현, 경기도 의정부시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시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마감 일자 매월 20일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파우치(색상 랜덤)



마스크(색상 랜덤)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돈 꺼 줘 기부하는

찍어! 찍어봐!



방탄
이거 QR 코드야!

스마일 방법

숨은 사랑의열매를 찾아주세요



그림 속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를 찾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응모 방법 숨은 그림을 찾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첨자에게는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